업보가 있다고 집착을 안다면 그게 정말 업보가 되는 것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내 자가발전소가 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바로 그 생산처니까, 내가 바로 그 맛을 안다면 그 생산처에서는 만 가지의 맛을 낼 수 있고 바로 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가지의 생산을 해서 남에게 만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심력과 원심력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엊그저께도 보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을 전부 마구니로 돌리는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어떠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각자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행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아프게만 하고 전달을 해도 못쓰게만 전달을 하고,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나쁘게만 해 나간다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게 마구니죠. 사람이 마구니 짓을 안 하는데 어찌 마구니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구니 짓을 한다면 마구니가 있을 거고 사람이 마구니 짓을 안 한다면 마구니가 없겠죠. 우리가 전부, 여러분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한 생각에 부처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한 생각에 중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구보리(上求菩提)' 하면 '하화중생(下化衆生)'이 거기 따라붙고 또 '하화중생' 하면 '상구보리'가 따라붙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 부처라면 여러분 속에는 다 중생들이 있는 거죠. 이 몸 자체로 인해서 다 중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는 다 중생들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거죽은 부처라고 보더라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중생들이 다 한마음을 깨치게 되면 이 중생들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다 깨쳐져서 인간으로 환토를 할 텐데요. 아니, 짐승들이라면 인간으로 환토를 하고 사람이라면 부처로 환토를 한다 이겁니다. 진화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도리를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들었던 거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해서 실천을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책도 반드시 백지가 있기 때문에 글씨를 쓴 것이고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 글자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백지가 아니었더라면 글씨는 쓰지도 못하고 그 글자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삼위일체로 돌아가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백지가 진짜입니까, 글이 진짜입니까, 글을 보는 게 진짜입니까? 어떤 거 하나 빼 버릴 게 없는 것이니, 바로 한데 합쳐서 부처라고 했고 그게 길이라고 했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전처럼 그렇게 기복으로만 야단법석 할 게 아니라,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자기가 지켜보고 익히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다지고 다지며 자꾸 걸어 나가야 하는 거죠. 놓고 놓고 걷고, 놓고 걷고…. 우리 살아나가는 게 바로 카세트와 같습니다. 거기다가 노래를 넣었다가 또 다른 노래를 넣으면 앞서 것은 없어지면서 채워지고, 또 넣으면 채워지면서 없어지고 채워지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진리요, 지금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 거기 무슨 업보가 붙어 있겠습니까, 채워지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채워지는데.

그러니 업보가 있다고 집착을 하거나 이런다면 그게 정말 업보가 되는 겁니다. 또 인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인과가 되는 것이고, 전자의 조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마음 하나가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 제가 꼭 개를 잡아서 약으로 써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딴 약은 먹기 싫고 개를 폭 삶아서 먹으면 자기 병이 낫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으로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옳을까요?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잡아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잡아먹게 했을까요?

대중 가운데서 잡아먹게 했을 겁니다.

큰스님 잡아먹게 하긴요. 허허허…. 난 잡아먹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못 잡아먹게도 안 합니다. 단,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소의 그 모습이, 그 살이, 그 고기가 내 고기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라면, 그거는 먹은 것도 없고 안 먹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역력하게 먹어서 그건 약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죠? 만약에 고기 한 점을 놓고 말입니다, 고기 한 점을 놓고 이게 소 한 마리라고 그런다면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곧이 안 듣죠? 곧이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대중 가운데서 안 듣습니다.

큰스님 안 듣죠? 그런데 이 몸뚱이가 큰데…,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가 몸뚱이라면 마음이, 그 지구도 탁 내놓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니까 말입니다, 지구가 콩 알갱이만도 못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고기 한 점이 어째서 소 한 마리가 아니 된다는 얘깁니까? 마음은 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 마음 하나가 수십 마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십 마리를 낳을 수도 있어요. 쓰레기통에 따뜻한 기가 도니까 생명들이 우루루 쏟아져 나오는 걸 보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 같은데 나 말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대중 웃음) 소 한 마리가 한 점도 될 수 있고 한 점이 소 한 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큰소리하고 다닐 수 있는데, 또 큰소릴 해서 큰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소리를 할 사람은 큰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자비라는 건 뭘 자비라고 하는가! 이거 들떼기로 쬐끔쬐끔 얘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자비라는 건 악하고 선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낮고 높고, 평전하고 평전치 않고, 가난하고 가난치 않고, 못나고 잘나고가 둘이 아니고, 남과 여, 동서남북이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자비입니다. 저 강물이 구정물이든 핏물이든 똥물이든 고름물이든 수많은 물이 다 들어와도 여여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흐르죠? 마음은 그와 같은 겁니다. 마음 쓰기에 달렸습니다.

여기 제주도에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수술하든 생선을 칼로 자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생선을 갖다가, 펄펄 뛰는 거를 한번 칼로 다가 탁 잘라 보십시오. 그 탁 자르는 순간 모든 혈맥의 피는 그곳으로 뭉칩니다. 피만 뭉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피가 뭉침으로써 이 마음, 의식이라는 자체가 딱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었다 하면 병나는 거예요. 언제나 탁 자른 그 자리는 제거해 버리고 다 씻어 버리고 피를 다 긁어 버리고 요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한 점! 한 점도 없는 게 마음인데 어찌 고기 한 점이 소 한 마리가 안 된다는 얘깁니까? 마음이라는 이 자체가 물 한 방울도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째서 소 한 마리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한 점이! 그래도 한 점이나 되는데요.

또 건너뛰어서 알래스카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한번 웃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닥터 웨버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말을 통하게 할 수가 있어야죠. (물컵을 기울여 보이시며) 이거를 이렇게 다 따라 내고서는 또 물을 붓고 또 따라 내고 또 물을 붓고 또 따라 냈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끄덕끄덕하거든요. 그렇게 고갯짓을 하니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시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호-, 호오-" 하면서 "아, 그렇게 비우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랬죠. (고개를 끄덕이시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 좋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좌선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죠.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면 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 40명 오고, 한국 사람이 한 3, 40명쯤 돼서 한 7, 80명이 법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람이 그렇게 모이는 게 아주 기적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통역을 해 줄 사람이 있나요, 또?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불교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통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받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나요? 나는 한국 사람만 들으라고 얘기하고 또 외국 사람한테는 또 딴 사람이 영어로 쓴 것을 읽어 주고 그랬으니까 우습죠, 그게.

그랬는데 그 소릴 듣더니 말입니다, 그중에 한국말도 알아듣고 외국 말도 할 줄 아는 중국 사람이 일어서서 대충 얘기를 몇 마디 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다고 손바닥을 치면서, 내가 끝나고 나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가끔들 일어서서 뽀뽀를 하는데 글쎄, 어디다 할 것 같습니까? 하하하…. 뽀뽀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뒤쪽 머리를 짚으시며) 여기다 할 수밖에 없죠? 나는 키가 자그마하죠? 그 사람들은 키가 외이 대같이 크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글쎄. 꼼짝없이 밑에서 뽀뽀를 당하고 말았죠, 뭐. (대중 웃음) 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기분도 나쁘겠지만 기분 나쁘다고 할 것도 없죠. 그 사람네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거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렇게 그런 일 저런 일 다 봐 가면서 다니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처지인데도 이 도리를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건 참….

부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책을 본다면 그 뜻을 봐야 하고 그 백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백지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글자를 알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아는 거죠. 마음이 있다면 마음 내는 게 있고, 육신이 있다면 보고 말하고 하는 이것이 교(敎)가 아닌가요? 불교 말입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도떼기로 이렇게, 나는 무슨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만나니까 쪼끔 하고 또 넘어가고, 쪼끔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그러해요. (잔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여기에 가설을 한다면 사방팔방으로 많이 할 수 있듯이 골목이 많아요. 마음이라는 게 체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는 것이,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기웃거리고 저 골목으로 들어가서 기웃거리고 요 골목으로 가서 기웃거리고 이런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질문자1(남) 기도와 관하는 것에 대해 헛갈립니다.

큰스님 근데 지금 기도라고 그런다면 '아이고, 되게 해 주시오.' 하고 비는 거를 기도로 압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꾼 겁니다. 그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즉 '기도' 하면 아니 되니까 '관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서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이 돼 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그 말 자체가. 그게 좋긴 좋은데 지금 진짜로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비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관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기도가 아닌 관을 하세요. 하여튼 관하는 것에는 일체 만법이 다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몸이 아프든지 뭐든지 간에요. 지금 여기 내 몸속에 공장장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선장이 회장이죠. 그 회장이 사장과 더불어 같이 그 공장장들을 죄 이끌고 나가는 선도자인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가. 그러니까 그 선도자가 한생각에 의해 다 한마음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다 놓는다면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생활과학인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체험해서 돌아간다면 그대로 천체물리학과 둘이 아님을 짐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해서 듣기에 어수선했겠습니다마는 그저 거기서 한 가지만 터득해도 만 가지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위 법문은 87년 11월 19일 국내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 자기가 지켜보고 익히면서 체험하고
> 체험하면서 자기를 다지고 다지며
> 자꾸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